

醫保酬價 현실화와 行政규제 시정 촉구

本會 白樂院 회장 李보사장관 방문



白樂院 회장

白樂院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 3월 29일 오후 李海元 보사 부장관을 방문,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와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시정 등 병원계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약 30분간 보사 부장관실에서 李 장관을 면담한 白 회장은 『지금까지 의료보험수가의 인상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일반관행수가와 의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병원경영에 압박을 주어 왔다』고 지적하고 『원활한 국민개보험시대의 유도를 위해 서도 현행 의료수가의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며 과감한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를 촉구했다.

또 白회장은 『감사원 감사 등 민간병원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각종 행정규제 조치는 의료계를 위축시켜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행정이 되도록 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白회장은 『이러한 문제는 병원 등 의료계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이며 숙원인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李보사 부장관은 『국민의료가 잘 되려면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 들었다.

이날 白회장의 李보사 부장관 면담에는 李晟雨 보사부의정국장과 河溟煜 병협사무총장이 배석했다.

定期總會 5월 1일 釜山에서

올해 사업계획 등 심의 예정

大韓病院協會는 금년도(제 26차) 정기총회를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釜山 코모도호텔 忠武홀에서 열기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식에 이어 △병원경영의 정신적 자세(張起呂 박사) △병원경영의 전략적 접근(尹德善 박사) 등 주제

강연과 85회계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총회 개최예정지인 釜山 코모도호텔은 부산시 중구 영주동 743번지 소재로 부산 메리놀병원과 인접해 있으며 전화는 釜山 ④ 9101~7.

85 專攻醫 정신교육

大韓病院協會는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1천 2백56명의 전공의(인턴)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새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에게 의사로서 필요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하고 밝은 의료풍토 조성, 신뢰받는 의사상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전공의 정신교육은 △서울(3월 5일 사학연금회관) △강원·경기(3월 6일 세브란스병원) △부산·경남(3월 12일 부산대병원) △대구·경북·충남·충북(3월 13일 경북대병원) △전남·전북(3월 19일 전남대병원) 등 5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됐다.

修練실무자교육 실시

大韓病院協會는 지난 3월 21일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부장 및 수련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85년도 제 2차 병원표준화 및 수련실무연수교육을 가졌다.

이날 전국경제인 연합회관에서 열린 연수교육에는 2백여

명의 전국병원 관계실무자들이 개정내용 ③ 심사요강 및 수련 참석하여 ① 병원표준화 사업의 병원 실태조사서 작성요령 등에 추진방향 ② 심사요강 해설 및 관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梁萬奎지부장 留任시켜

病協 서울지부 定總 盛了



梁萬奎 지부장

大韓病院協會 서울지부는 지난 3월 25일 금년도(제 7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료보험진료비 연체시 이자 가산지불 △의료법인의 합병회사 등에도 병원 개설 허가 △공휴일 진료시 진료비가산제 확대 등을 病院協會에 건의키로 하는 한편 梁萬奎지부장(성바오로병원 의무원장) 등 현 회장단을 모두 유임시켰다.

이날 오후 6시 엠버서더호텔에서 白樂院병원협회회장과 1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병원협회 서울지부 총회는 최근 병원경영과 관련, 의료보험진료비 지불연기시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를 가산하여 받도록 하는 것과 공휴일 진료시 진찰료만 가산토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수술치료 등 모든 진료비에 확대 적용토록 해 줄 것을 결의했다. 또 현행 의료법인에 한해서만 병원개설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관계법규를 개정, 합병회사 등에서 병원개설이 가능토록 하여 병원개설의 문호를 넓혀 줄 것 등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병원협회에 건의키로 했다.

총회는 3천10만 6천원의 지난해 결산안과 3천 4백 56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지부에 사무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다.

이어 임원개선에 들어간 총회는 梁지부장과 朴聖德 朴憲擘 崔奎植부지부장 그리고 金光泰 石弘감사를 유임시키고 이사선임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일부 상임이사 補選

大韓病院協會는 최근 일부 상임이사의 소속변경에 따라 4명의 상임이사를 보선했다.

보선된 상임이사는 △柳在德(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장) △趙軫奎(경희의대 부속병원장) △李台鎬(경북의대 부속병원장) △최정수(국방부의무관리관) 등 4명이다.

병원표준화 워크숍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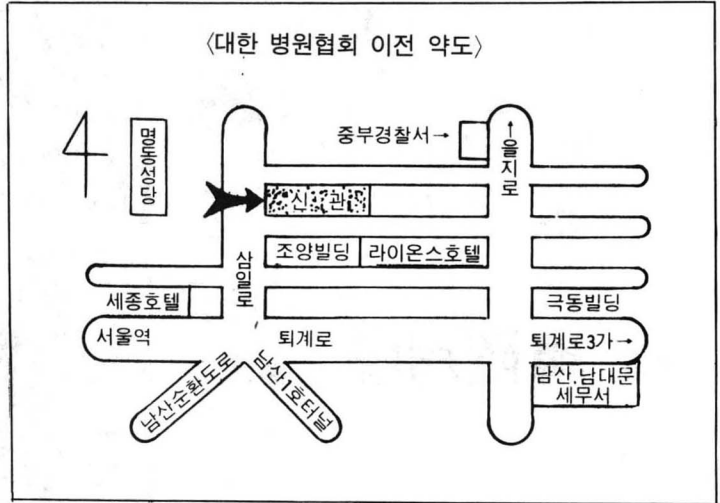
大韓病院協會는 大韓醫學協會와 함께 지난 3월 8·9일 이틀동안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병원표준화사업 및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 워크숍에서는 전공의 수련 업무에 있어 병원협회와 분과 학회협의회는 서로 협조하여 방향모색에 일관성을 유지하며 공동연구위원회 구성을 고려키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병원표준화 심사와 수련병원 실태조사 현황 및 문제점(金敎命 병원협회표준화이사) 학회별 전공의 지도 감독 현황과 문제점(김종선 서울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외국의 병원표준화 사업과 수련교육제도(洪弼勳 연세대의무부총장)등의주제발표가 있었다.

病協, 사무실 移轉

大韓病院協會는 지난 3월 15일 사무실을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49번지 조양빌딩 신관11층으로 이전했다. 새대표전화는 275-7066, 275-7021~4

盧庚昞부회장 목련장 받아



大韓病院協會 盧庚昞 부회장(제일병원장)은 4월 7일 제13회 보건의 날에

정부로부터 유공 保健人으로 선정돼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忠南大병원장에 尹承鎬교수

政府는 4월 1일 忠南醫大부속병원장에 尹承鎬교수(정형외과)를 임명했다.

趙성신병원장 칠레훈장 받아

서울 종로 誠信病院 趙永祺 원장이 지난 3월 12일 로피시 시駐韓칠레대사로 부터 칠레의 베르난도 오이기스 최고훈장을 받았다.

趙원장은 지난 1968년부터 칠레를 비롯한 남미 각국의 주한 외교관 및 가족들에게 무료진료를 펴오며 민간외교를 다졌다.

서울을지병원장 金昞駿씨

서울 乙支病院은 지난 3월 14일 병원장에 金昞駿진료부원장(신경외과)을 승진 발령했다.

金應振 전서울을지병원장은 을지의료원 의무원장으로 전보됐다.

대전을지병원장 李永根씨

대전乙支病院은 4월 1일 병원장에 李永根부원장(신경외과)을 승진 발령했다.

朴부산일신기독병원장 취임

朴景華전의료보험조합연합회 상근심사위원은 지난 3월 16일 釜山 日新基督病院長에 취임했다.